

출장복명서

결 재	★매니저	청소년사업실장	사업본부장	대표이사	
	이지현	홍성미	이재영	07/26 최원기	
협조	총괄매니저	최정배			

작성일	2023. 7. 24.				
출장목적	2023. 글로벌 배틀트립 진행(팀 두앤돈트)(※현장출퇴근, 출퇴근지문미인식)				
출장지	오스트리아 빈				
출장기간	2023-07-12 09:00	부터	2023-07-18 18:00	까지	

복명자	직급 성명				
	6급	이지현	6급	장효지	
복명내용					
<input type="checkbox"/> 출장일시 : 2023- 07- 12 09:00 ~ 2023- 07- 18 18:00 <input type="checkbox"/> 출장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市 일대 <input type="checkbox"/> 출장자 : 6급 이지현, 6급 장효지 <input type="checkbox"/> 출장내용 <input type="radio"/> 사업명: 2023 글로벌역량강화프로젝트 글로벌 배틀트립 <input type="radio"/> 내용 - 비엔나 학생 한인회 기관 방문 및 청소년 관련 사업 인터뷰 - 마약 관련 기관 사업 관련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일자	일정	주요내용		장소	
07.12.	이동 및 도착	한국 출발, 비엔나 도착		인천공항 → 비엔나공항	
07.13.	기관 방문 및 인터뷰	비엔나 한인 학생회 기관 방문 및 인터뷰		Wien Mitte	
07.14.	기관 방문 및 인터뷰	Kolping Osterreich 기관 방문 및 인터뷰		Kolping	
07.15.	문화탐방 및 벤치마킹	무제움스크바티어 및 벨베데레 방문		무제움스크바티어 및 벨베데레	
07.16.	문화탐방 및 벤치마킹	선부른 궁, 호프부르크 왕궁 관람		선부른 및 호프부르크	
07.17.	이동 및 도착	비엔나 국제공항 출발		비엔나공항 → 인천공항	
07.18.		인천 공항 도착			

복 명 내 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

일 자	장 소	프로그램 주요내용	
07.13.	Wien Mitte	<p>○ 비엔나 학생 한인회 기관 방문 및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학원 등 보충 교육은 부진한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유급이라는 제도가 존재, 유급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 성적이나 대학입시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국에 비해 덜함. • 청소년의회, 학생클럽 등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은 극 소수이며, 대외활동이 대입반영 혹은 가산점 등 혜택이 없어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낮음. • 공교육에서는 마약 교육을 별다르게 진행하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청소년 마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 흡연자의 90프로는 대마를 접해보는 것 같으며,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마약을 많이 사용함. • 비엔나 대학교에서 한국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자가 많은 편에 비해, 선발인원이 적어 한국과 교류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 <p>➔ 차후,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컨퍼런스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마련 예정</p>	 
07.14.	Kolping Österreich	<p>○ 현지 내 칸나비스샵 분포도 및 실태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부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1차 정제된 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함. • 16세 이상부터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초도 구입하기 쉬움. <p>○ Kolping Österreich 담당자 관련 사업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복용 청소년에 대한 컨설팅 및 코칭 • 마약 뿐 아닌 음주 외 기타 불법 약물오남용도 상담 및 치료해주고 있음. • 단순한 약물 치료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 치료, 직업 연계, 의료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 • 약물은 청소년 개인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친구 및 가족 상담도 함께 병행함.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과다는 오스트리아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약물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한 편이며, 식약처 인증도 까다롭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많지 않음. • 기본적인 캠페인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지만, 관심도나 효과성이 높지는 않음. 	 

복 명 내 용

일 자	장 소	프로그램 주요내용	
07.15.	무제움스 크비티어 및 벨베데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문화 및 야외 행사 문화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오폴트 미술관, 쿤스트할레 빈 등 이 위치하여 매년 여름 빈축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대규모 전시장, 현재작품 전시공간, 이벤트 개최 공간 등 총 3가지의 범주로서의 예술공간의 역할. -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으며, 특히나 최근 리싸이클링 관련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더욱 다채로운 광장이 되었음.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현재는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중 - 상공에서는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고, 하공은 매번 바뀌는 주제에 따른 특별 전시를 진행함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관람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올해, 벨베데레 궁전에서 새로운 온라인 게임을 출시하였으며, 왕궁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궁전을 안내하는 AR게임으로 만나 볼 수 있게 제작 및 제공함. 	
07.16.	선부른 및 호프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국제회의실 등 시설 관람 및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단위의 현지 청소년 및 관람 청소년이 많았으며, 특히나 청소년들끼리 역사에 대해 논의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박물관, 미술관, 집무실 등이 서로 다른 양식으로 지어져있으며, 역사와 관련되어 건축양식이 동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신기하였음. - 왕궁 정원 조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관저에 대한 친근감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었음. 	

□ 출장소감

- 학생 한인회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여,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니즈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하지만 그와는 상이하게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 대학 전공으로 한국학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향후 구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음.
- 한국에 비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큰 제한 안에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대마초의 일부 허용 등) 특히나, 강압적인 절대 제재가 아닌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의 악물에 대한 호기심이 호기심 차원에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오스트리아 사회문화가 ‘금지’에 대한 대한 압박이 아닌 적정한 범주 안에서의 예방법 제공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음.

복 명 내 용

- 국가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제에 대한 해결 접근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느꼈음. 단순 마약 예방 관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국제교류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 향후계획

- 성남시 청소년들의 마약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 및 한국 환경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오스트리아 한인 학생회와 함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차후 진행될 국제교류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논의 및 개발, 협력 관계 도모
- 오스트리아의 광장 문화에서 벤치마칭 한 것을 토대로 다양한 자원(리싸이클링 작품 전시) 연계 및 축제 및 광장 문화의 장점들을 반영하여 성남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확립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공개

결 재	★담당자	센터장	사업본부장	대표이사	
	장효지	노승림	이재영	07/26 최원기	
협 조					

출 장 복 명 서

- 출장일시 : 2023- 07- 12 08:00 ~ 2023- 07- 18 17:00
- 출 장 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일대
- 출 장 자 : 6급 장효지, 6급 이지현
- 출장목적 : 글로벌역량강화프로젝트 글로벌배틀트립 운영(출퇴근지문미인식)
- 출장내용
- 사업명: 2023 글로벌역량강화프로젝트 글로벌 배틀트립
 - 기 간: 2023. 07. 12.(수) ~ 07. 18.(화)
 - 장 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일대
 - 인 원: 2명(6급 장효지, 6급 이지현)
 - 내 용
 - 비엔나 학생 한인회 기관 방문 및 청소년 관련 사업 인터뷰
 - 마약 관련 기관 사업 관련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일 자	일 정	주요내용	장 소
07.12.	이동 및 도착	한국 출발, 비엔나 도착	인천공항 → 비엔나공항
07.13.	기관 방문 및 인터뷰	비엔나 한생 한인회 기관 방문 및 인터뷰	Wien Mitte
07.14.	기관 방문 및 인터뷰	Kolping Osterreich 기관 방문 및 인터뷰	Kolping
07.15.	문화탐방 및 벤치마킹	무제움스크바티어 및 벨베데레 방문	무제움스크바티어 및 벨베데레
07.16.	문화탐방 및 벤치마킹	선부른 궁, 호프부르크 왕궁 관람	선부른 및 호프부르크
07.17.	이동 및 도착	비엔나 국제공항 출발	비엔나공항 → 인천공항
07.18.		인천 공항 도착	

- 프로그램 세부내용

일 자	장 소	프로그램 주요내용	
07.13.	Wien Mi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나 학생 한인회 기관 방문 및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학원 등 보충 교육은 부진한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유급이라는 제도가 존재, 유급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 성적이나 대학입시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국에 비해 덜함. • 청소년의회, 학생클럽 등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은 극 소수이며, 대외활동이 대입반영 혹은 가산점 등 혜택이 없어 청소년들의 관심이 낮음. • 공교육에서는 마약 교육을 별다르게 진행하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청소년 마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 흡연자의 90프로는 대마를 접해보는 것 같으며,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마약을 많이 사용함. • 비엔나 대학교에서 한국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자가 많은 편에 비해, 선발인원이 적어 한국과 교류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 ➔ 차후,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컨퍼런스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마련 예정 	 
07.14.	Kolping Österrei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내 칸나비스샵 분포도 및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부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1차 정제된 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함. • 16세 이상부터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초도 구입하기 쉬움. ○ Kolping Österreich 담당자 관련 사업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복용 청소년에 대한 컨설팅 및 코칭 • 청소년이 단순 마약뿐만 아니라, 음주 외 기타 불법 약물까지도 상담 및 치료해주고 있음. • 단순히, 약물 치료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 직업 연계, 의료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 • 약물은 청소년 개인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친구 및 가족 상담도 함께 병행함.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과다는 오스트리아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약물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이며, 식약처 인증도 까다롭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 등과의 문제는 많지 않음. • 기본적인 캠페인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지만, 관심도나 효과성이 높지는 않음. 	 

일 자	장 소	프로그램 주요내용	
07.15.	무제움스퀘어 및 벨베데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문화 및 야외 행사 문화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오폴트 미술관, 쿤스트할레 빈 등 이 위치하여 매년 여름 빈축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대규모 전시장, 현재작품 전시공간, 이벤트 개최 공간 등 총 3가지의 범주로서의 예술공간의 역할. -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으며, 특히나 최근 리사이클링 관련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더욱 다채로운 광장이 되었음.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현재는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중 - 상공에서는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고, 하공은 매년 바뀌는 주제에 따른 특별 전시를 진행함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관람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올해, 벨베데레 궁전에서 새로운 온라인 게임을 출시하였으며, 왕궁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궁전을 안내하는 AR게임으로 만나 볼 수 있게 제작 및 제공함. 	
07.16.	쾨부른 및 호프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국제회의실 등 시설 관람 및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단위의 현지 청소년 및 관람 청소년이 많았으며, 특히나 청소년들끼리 역사에 대해 논의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박물관, 미술관, 집무실 등이 서로 다른 양식으로 지어져있으며, 역사와 관련되어 건축양식이 동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신기하였음. - 왕궁 정원 조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관저에 대한 친근감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었음. 	

□ 출장소감

- 학생 한인회와의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오스트리아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여, 공동체적인 활동에 대한 니즈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하지만, 그와는 상이하게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와 다르지 않게 많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는 강한 만큼 향후 구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음.
- 한국에 비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한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나, 강압적인 제재가 아닌 한도 안에서의 자유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호기심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오스트리아 사회 자체가 이에 대한 압박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안에서의 올바른 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음.
- 국가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제에 대한 해결 접근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단순 마약 예방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국제교류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 향후계획

- 성남시 청소년들의 마약 관련 실태 조사·분석하여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약과 관련된 기초 교육 및 한국 환경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오스트리아 학생 한인회와 함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차후 진행될 국제교류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논의 및 개발, 협력 관계 도모
- 오스트리아의 광장 문화에서 벤치마칭 한 것을 토대로 다양한 자원(리사이클링 작품 전시) 연계 및 축제 및 광장 문화의 장점들을 반영하여 성남의 환경에 맞춘 친근한 이미지 확립

위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복명자 : 장효지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